

## 1936년 이브닝 드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김문숙 · 한성지 · 김현아 · 홍인숙 · 김완주 · 이현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1930년대 초 패션은 이브닝 의상과 일상복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이브닝 의상의 스커트 길이도 전쟁전과 같이 길어져 1930년대의 현실도피주의적인 사회분위기와도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슬림 앤 롱 스타일(slim and long style)로 바이어스 재단이나 고어로 처리하여 스커트 도련이 넓어지는 플레어 스커트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패션포인트가 다리에서 등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0년대의 의상을 대표할 수 있는 등을 강조한 형태의 드레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Janet Arnold가 쓴 「Patterns of Fashion2」의 1936년 이브닝드레스의 패턴을 기초로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제작인원은 6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고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작품을 연구 제작하였다.

제작 방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브닝 드레스의 커팅 기법이 흥미롭다. 앞 패널은 바이어스로 재단되었고, ¼원 장식을 부착하였으며, 새쉬와 큰 보우 및 깊게 파인 등은 이 시기의 드레스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드레스의 가장 큰 특징인 뒤 디테일 플라운스는 25세트의 ¼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어깨부분에서부터 스커트 바닥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¼원이 지그재그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좌우대칭을 이루고, 부착방법은 탐스티치로 처리하여 아름다운 플라운스를 형성하였으며 뒤트임은 싸개스냅으로 처리하였다. 앞 바디스는 바이어스로 재단되었고 뒤 바디스는 식서방향으로 재단된 것이 특징적이다. 스커트도 바이어스로 재단되었으며 여밈은 뒤중심에서 플라켓으로 처리되었다. 큰 보우는 바이어스로 제작하였으며 웨이트 밴드의 여밈은 앞 중심에서 스냅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색상을 살펴보면 1930년대 이브닝 드레스에서 자주 보이는 블루계열인 그레이쉬 라벤다 블루와, 소재로는 실크 타프타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드레스 제작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로 신체의 곡선을 인체에 밀착시키지 않는 재단법과 다양한 장식기법을 응용한 실물을 제작함으로써 현대복식에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